



전주비전대, 에이원심사순해사정과 산학협력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17일 에이원심사순해사정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에이원심사순해사정 박종훈 대표이사, 채수봉 이사, 강희준 본부장 박명문 팀장과 전주비전대학교 우병훈 총장, 이근상 산학협력단장, 보건의료경영과 고민석 학과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두 기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겸임교수 과정, 학생봉사활동, 현장실습 및 기술지도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병훈 총장은 "에이원심사순해사정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을 주관한 보건의료경영과 고민석 학과장은 "에이원심사순해사정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현장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박종훈 대표이사는 "서로 간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보건소, 임신부·영유아 영양 관리 대상자 모집

정읍시보건소는 임신부와 영유아 영양 관리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대상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미만인면서 영양 위험 요인(저신장, 저체중, 빈혈, 영양섭취 불량 등), 영양학적 요인(임신 시 비만 임신 중 당뇨 등), 식생활 요인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문제를 보유해야 한다.

대상자는 6가지 식품 패키지를 최대 12개월 동안 받으며 매월 1회 영양교육이 진행된다.

지난 18일 진행된 영양교육은 '영유아 빈혈'을 주제로 스스로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진행됐다. 총 대상자 중 55가구 78명이 참여했으며 교육 참여가 어려운 가정에는 추후 개별적으로 가정방문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식품 제공을 통해 빈혈 개선과 대상자의 영양 관리 자조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김대환 기자



임실군, 찾아가는 학교 구강보건사업 운영

임실군이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신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초등학교 14개교를 순회 방문하여 찾아가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시기는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나오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 사업은 올바른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여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된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치과 전문인력이 구강보건 이동 버스로 각 학교를 방문하여 구강검진,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차아염소산소 등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불소용액양치사업은 각 학교 또는 가정에서 주 1회 일회용 후 실시하며, 치아를 단단하게 하고 세균의 활동을 방해하여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구강관리를 위해 매년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곤 원장은 "학령기 아동은 평생 구강 관리의 기틀이 마련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 사업을 통해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변화·젊음, 창의·혁신의 새마을운동 펼칠 것”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및 제22대 회장단 취임을 축하하고 자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회장 이상수)는 17일, 그랜드힐스 컨벤션에서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도교육감, 도 및 시군 새마을회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주제로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통해 이상수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계승발전 시키고 사회적 갈등 해소와 공동체정신 회복을 통한 연대와 협력으로 변화와 젊음, 창의와 혁신의 새마을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함께 취임하는 박용운 협의회장, 김귀자 부녀회장, 이승희 문고회장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덧붙였다.

또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두팔을 걷어붙이고 아낌없이 나눔을 실천한 새마을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박세은 전북대 박사과정생, 제1기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

전북대학교 박세은 박사과정생(환경에너지융합학과·지도교수 오주원)이 '제1기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차별화 된 장학 지원 사업을 만들라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올해 신설됐다. 이에 석사과정생 50명, 박사과정생 70명 총 120명이 선발됐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석사과정생은 매월 150만 원, 최대 2년간 3,600만 원을 박사과정생은 매월 200만원 등 최대 4년간 9,6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박세은 박사는 캐나다 켈러대학교(6개월)에서 육상이산화탄소 누출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한 것을 비롯해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3개월)과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3개월)에서 육상 지열발전 부지 특성화 연구,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3개월)과 노르웨이 지반공학연구소(4개월)에서 해양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부지 특성화 및 모니터링 공중연구 등의 풍부한 현지 과업 연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포스코인터내셔널 산학장학생 선발 한국자원공학회 회장 수상,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의 학생우수논문 발표상(2건) 수상, 국제 교육프로그램(제16회 IEACHG International CCS Summer School) 수강생 선발 등의 성과를 통해 지구과학, 자원공학과 분야 우수 신진연구인력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현재 전북대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자원에너지공학)와 환경에너지융합학과는 K-CCUS 추진도의 지원을 받아 부처협업형 온실가스감축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박세은 박사는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준 오주원 지도교수님과 충분한 연구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자원에너지공학),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의 영예를 안고 더 큰 사람이 돼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여성가족재단서 양성평등업무 추진기관 합동 워크숍

17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에서 양성평등업무 추진기관 합동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시·군 공무원 여성정책연구소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해 기관별 주요사업을 공유했다.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팀 위촉을 시작으로 정부합동평가 대응, 지자체 위원회의 성별 균형참여 이해, 성인지 의무교육 준수, 2024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추진방향과 지자체 자기관리 성별영향평가, 전북 성주류화 특화사업에 대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재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특별강연에서는 "지역성평등지수의 이해"를 주제로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과 산정과정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전경희 원장은 "재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의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내실있게 성주류화제도 운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전통시장·5일장 상인회, 시에 장학금 기탁

김제전통시장 상인회와 5일장 상인회가 17일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열린 김제전통시장 특설무대에서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김제시장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이날 김제전통시장과 5일장 상인회가 단합해 5일장 1주년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고, 올해 처음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장학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오인중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김신근 5일장 상인회장은 "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관심에 보답하고자 감사의 마음으로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김제시민으로서 김제시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장은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육성에 관심을 갖고 흔쾌히 나눔을 실천한 상인회장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17일 고용복지공동교육관에서 우수자원봉사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2024 우수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전북신용보증재단성장지원센터에서 김유진 계약직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 자원봉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이스피싱의 피해사례들과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의 내용으로 다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는 "보이스피싱에 노출이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이상한 느낌이 들 때는 항상 의심해보고 조심해야겠다"고 말했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교육을 통해 들은 내용과 사례들을 잘 기억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남원 도통동, 찾아가는 가족교육·간담회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와 남원시 가족센터는 지난 16일 도통동 3층 회의실에서 관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족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과 간담회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생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부 소통 교육을 통한 건강한 가정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다문화가족은 "병소에는 직장 생활 등의 사유로 서로 만나기 힘들게 비슷한 상황이라는 다른 가정들을 만나 이야기하니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선자 동장은 "이번 간담회 의견들을 잘 수렴해 다문화가족들이 도통동에 잘 정착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이백면, 자매결연도시 고창 고수면 방문

남원시 이백면(면장 안동준)은 17일 자매결연도시인 고창군 고수면을 방문하여 상호 간 우의 증진을 위한 친선의 시간을 가졌다.

두 기관은 2023년 9월 6일 자매결연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상호 시군 행사 및 각종 현안 사업 홍보와 우수사례 공유 등 상호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교류행사에서 춘향제의 대표 콘텐츠 춘향제 대동길놀이에 고수면의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해 함께 참여를 약속했으며, 특히 이백면은 고수면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제4회 춘향제와 2024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제32회 흥부제 등 주요행사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안동준 이백면장은 "이번 교류행사를 통해 고수면과 폭넓은 분야별 교류를 협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교류를 지속해 이백면과 고수면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기전대,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선도 사업설명회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은 지난 16일 전주시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선도사업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 개요 및 목표, 내용과 방향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업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맞춤형 창업 교육 지원,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초기시범비 차등 지원, △사업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한편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오는 30일 2차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모집은 4월 30일까지며, 전주기전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전자우편(jsw5825@kijonackr) 또는 방문(전주기전대학 본관 315호)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남원 도통동 맞춤형복지팀, 미용 봉사 나서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 맞춤형복지팀은 지난 15일, 병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환우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미용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미용 봉사를 진행한 재능기부자는 23년 초 재능기부 봉사자로 인연을 맺고 이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전문 미용인 봉사자로 평소에도 요양병원 등을 다니며 봉사하고 있다.

환우는 "머리카락을 잘라다니, 오랜만에 시원한 느낌이 든다. 항상 얽드려 생활하며 몸도 마음도 지쳤는데 미용으로 인해 마음까지 시원하게 정돈된 같다"며 기뻐하였다.

한편 소선자 도통동장은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손길이 있기에 더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도통동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욕구를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재능기부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통동행정복지센터는 다양한 재능기부자의 기부 손길로 미용봉사를 비롯해 독거노인, 취약계층 어르신 점심 식사 대접, 잔등 무선리모델링 설치, 마당 치마 무명 관벌 교체, 아불 빨래 등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남원=김기두 기자